

보도시점

2026. 7. 21.(화) 11:00

2026. 7. 22.(수) 조간

배포

2026. 7. 21.(화) 09:00

경북 예천 구제역 방역조치 차질 없이 추진 중

- 긴급 백신접종·예찰·소독 등 신속한 방역조치 완료, 현재까지 추가 이상 없음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7월 3일(금)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축산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이후 긴급 방역조치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 의심사례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호와 소 농장 5호에서 구제역을 확인한 즉시 발생농장과 반경 3km 이내 농장 등에 대한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발생농장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개체 38두(소 24두, 돼지 14두)만을 처분하였다.

또한,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의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방역 차량 등 소독자원 69대를 투입하여 해당 지역 축산농장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으며,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세척·소독(7월 3일부터 2주간)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유지 중이다.

* 경북 안동시·의성군·상주시·문경시·영주시, 충북 단양군

이번 구제역은 혈청형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상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O형으로 확인되었으며,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의 소, 돼지 등 우제류 농장 8,122호, 약 85만 2천 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과 임상 검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또한, 발생농장 125호는 주 2회, 반경 3km 내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농장 2,011호는 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하는 등 예찰을 강화하여 7월 17일까지 3차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 약 97천호를 대상으로 주 1회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발생지역에 대한 임상검사와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소독과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농장 양성축의 마지막 매몰일로부터 21일이 지나는 7월 25일 이후부터 발생농장과 반경 3km 내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전건 음성으로 확인되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관계기관과 지방정부, 생산자단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방역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가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축산농가는 백신접종 주기를 준수하여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2531)
		담당자	서기관	이병용 (044-201-2532)





경북 예천 구제역 발생!

소·돼지·염소·양 등 우제류 사육농가는 구제역 의심증상을 꼭 확인해 주세요.



다음 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하세요!**



발열



침 흘림



물집



절뚝거림



식욕저하



생산량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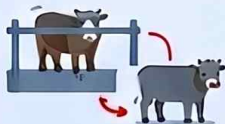
침 흘림 + 물집 + 절음 = 즉시 의심



의심되면 바로 이렇게!

1

아픈 가축을 즉시
다른 가축과 분리



2

가축 이동·
출하·판매 중지



3

외부인·차량
출입 최소화



4

축사 안팎
소독 강화



5

즉시 방역기관
신고



신고전화

1666-0682 / 1588-9060



꼼꼼한 임상증상 관찰과 빠른 신고가 농장을 지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